

동향에 종친 '송-송매치' ... 광주 최고 승부처

<감석> <기석>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1> 광주 서갑

광주의 중심지인 서구갑 선거구에서는 5명의 정당 후보가 맞붙는다.

새누리당 양병현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후보,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 정의당 장화동 후보, 민중연합당 이은주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판세는 '2강 3약'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이 가운데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 이면서 지역에서 꾸준히 정치활동을 해온 더민주 송갑석 후보와 국민의당 영업인재인 부장판사 출신 송기석 후보 간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최근 인기 상승가인 드라마 '태양의 후예' 주인공인 송중기·송혜교를 지지하는 '송송 커플'에 비해 '송송 매치'라는 우스갯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두 후보는 이름만 비슷할 뿐 아니라 고향도 전남 고흥으로 같은데다, 모두 여산 송씨 원운공파여서 지역구 내 고흥 향우들과 종친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기석 후보가 향력이 높은 속직간으로, 고향은 송갑석 후보가 고흥 포두면, 송기석 후보가 고흥 동강면이다.

더민주 송갑석 후보와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일 하루 전인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더민주 송갑석 후보는 안철수 대선캠프 멤버였던 이상갑 변호사와 이남재 전 손학규 대표 비서실 부실장, 천정배 계열의 김영길 전 국민의당 시장위원장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캠프'를 꾸렸다.

여기에 김상곤 더민주 인재영입위원장과 DJ의 3남인 김홍걸 더민주 국민통합위원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전면에 나서 총력 지원한다.

송갑석 후보는 "현역과 맞붙는 경선에서 광주지역 유일한 승리 후보로, 특히 송 후보의 경선 승리로 더민주의 광주시민의 영입이었던 100% 현역 국회의원 교체를 이뤄냈다"면서 "국민의당이 현재 정당 지지도가 높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왔던 광주시민들이 결국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화운동에 청춘을 바치고 광주를 위해 살아왔고,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선택한 300인 중 유일한 호남 인물임을 강조하며 '누가 더 열정적이고 치열하게 살아온 인물인지' 유권자들이 선택해줄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그는 지방대 학생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전대협 의장을 역임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

정당 이름	새누리당 양병현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민의당 송기석	정의당 장화동	민중연합당 이은주
나이	61	49	52	53	44
역력	· 현 상지대 교수 · 현 새누리당 수석부위원장	· 현 더민주 정책위 부위원장 · 현 전남대총학생회장	· 현 당 정책위의장 · 현 광주지법부장판사	· 전 광주시 인권증진 시민위원장 · 현 중소기업인 광주네트워크대표	· 전 6대 서구의회 부의장 · 현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주요 공약	· 친환경 녹색사업 유치 · 양동시장 현대화	· 상무소각장 이전 문화복합시설 조성 · 지역출신 채용활성화	· MICE산업복합단지 조성 · 대기업 협조 근절 '광정성장법' 제정	· 사후연세정 활성화 지원 · 중소기업인 적합 업종 특별법 제정	· 0~14세 무상으로 상무소각장 주민복지 커뮤니티 센터 건립

● 더민주 송갑석

"DJ 선택 '젊은 피' 300인에 선정"

광천동 의료관광특구 조성 등 공약

을 주도하다 5년 2개월이라는 세월동안 수감되기도 했다. 송갑석 후보는 SNS에서 24시간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정책공약과 비전을 알리는 등 젊은층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고, 한편으로는 동네를 돌며 직접 시민들을 만나며 60대 이상의 노년층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도 30일 4·13 총선 승리를 다짐하는 희망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송기석 후보는 정치에 임문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말 그대로 '초짜' 정치 신인이다.

그는 정치 신인으로 인지도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낮지만, 정당 지지도와 경쟁력 있는 인물을 강조하며 민심을 파고 들고 있다. 안철수 공동대표의 호남 인재영입 1호일 만큼 참신함과 신선함의 강점이자 최대 자산이다.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도 든든한 힘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그는 법률가의 전문적인 경륜과 참신성, 미래 발전가능성을 강조하며 50대 이상의 전통적 야당 지지층을 파고들며 표심 굳히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판사출신 담지 않게 스캔들 등이 좋아 인지도를 빠르게 상승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1981년 용공누명을 쓴 광주했벌회 재심사건과 관련, 지난해 무죄를 선고하고 33년만에 명예회복을 시킨으로써 '사법부의 과오를 사죄한 판결'을 내린 양심있는 법조인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 국민의당 송기석

안철수 대표의 호남 인재 영입 1호

정당 바람·경쟁력 있는 인물 강조

그는 이 때문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사건 미방인이 선거사무소를 찾아 힘을 보태기도 했다.

송기석 후보는 "사회정의를 법정에서가 아닌 정치권에서 실현해보고 싶어 정치권에 입문한 만큼 공정성장과 정의로운 사회, 사회양극화 해소에 앞장 설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양병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상지대학교 교수이자 당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광주는 중앙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장화동 후보가 표발을 다지고 있다. 고흥 출신으로 전남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25년 동안 출근 시민사회활동과 시민인권운동을 펼쳐왔다.

장 후보는 "국민의 기본권과 법을 쟁겨 주는 정치인이 필요한 시대"라며 "더불어 사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에선 이은주 후보가 나섰다. 장성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중앙위원과 6대 광주 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사랑의 물레산단 광주본부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광주시민, 서구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가슴에 품고 어렵지만 당당히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0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새누리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4·13총선 후보자들이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선대위 발대식... 본격 선거체제로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당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광주 선대위 발대식을 하고 총선 결의를 다졌다.

발대식에는 심판구 시장 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광주 후보 7명이 참석했다.

시당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후보 지원에 나서고 당원들을 동원해 대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당원들은 '광주발전은 새누리당'을

구호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건립 등 지역 경제 살리기를 추진해 반드시 1석 이상 당선 하자는 목표를 되새겼다.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심판구 시장 위원장은 "광주의 미래를 위해 여당 국회의원 1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야당 텃밭인 광주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청에서도 민원증명서 발급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

광주시가 광역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자치구가 발급해온 민원증명서를 발급한다. 4월부터 광주시청 민원실에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등 6종의 민원 발급이 가능하다. 대상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도 및 입야도, 자동차 등 등록원부,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이다.

이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이용할 수 없는 만큼 구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광주 서구청 직원이 시청 민원실에 파

견 형식으로 나와 업무를 처리하는 모습을 썼다. 서구청의 전산 시스템을 시 본청으로 연결하는 작업도 사전에 마쳤다. 지적도 등을 발급하려는 시민은 시청 방문 때 이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광주에는 시 본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 1공장, 신세계백화점, 등기소, 서창농협 등 48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다. 토지와 입야대장 등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등 65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F-16D 전투기 청송서 추락 ... 조종사 2명 탈출

우리 공군의 F-16D 전투기가 30일 오후 비행 도중 경북 청송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이날 "오후 4시 6분경 경북 영덕 인근 상공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F-16D 항공기가 추락했다"며 "조종사 2명은 비상 탈출해 무사하다"고 밝혔다. 이 전투기는 경북 청송군 부남면의 야산에 추락했으며 전투기 추락으로 인한 민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종사 2명은 추락 도중 사출(ejection) 방식으로 비상 탈출했으며 무사히 산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헬기로 항공우주의료원으로 옮겨져 진찰을 받은 결과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추락한 F-16D 전투기는 총복 충주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공대지 공격훈련을 하던 중 엔진 정지 현상을 보여 추락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조종사들은 엔진 재시동을 시도했으나 엔진이 작동하지 않자 전투기가 야산을 향해 비행하도록 방향을 잡은 다음 비상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 연합뉴스

■ 선거 구도·판세

광주 서구갑 선거구는 선거를 13일 앞둔 현재 더민주 송갑석 후보와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 간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게 지역정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여기에 여당인 새누리당 양병현 후보와 진보정당인 정의당 장화동 후보, 민중연합당 이은주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을 할지 주목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도 이 곳을 박빙의 승부처로 전망하고 있어 선거운동 기간 중 정당 간 선거전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더민주 송갑석 후보와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 측은 모두 자신들이 우세하다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지지층 송갑석 30~40대·송기석 50대 이상

더민주 송갑석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출마해 16.74%의 득표율을 올린 경험이 있고, 경선에서 광주의 유일한 현역인 박해자 의원을 꺾은 저력을 발휘하면서 인지도면에서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 송기석 후보는 당 지지도가 앞서고 있는 만큼 '정당 바람'과 선거기간 중 인물 경쟁력이 더해지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송갑석 후보는 상무·동천동 등 신시가지지를 중심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송기석 후보는 화정·농성동 등 전통적으로 더민주 지지세가 강했던 구도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자체 분석한 결과 지지층도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갑석 후보는 선거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주요 연령층인 30~40대에서, 송기석 후보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이상이 주요 지지층인 것 분석하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레이저백내장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정확도와 안전성이 현저히 높은 최첨단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입니다. 3D OCT가 탑재된 펄스레이저를 사용해 일반 백내장 수술보다 훨씬 빠르고 오차 없는 수술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무출혈 / 무통증 / 무봉합 / 무입원이 가능하며 검사부터 수술까지 하루에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법인이회생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이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